

 세계한인민주회의 2025.03.10.(월)	보 도 자 료 담 당 : 국제국 전 화 : 02)2630-7077
--	---

더불어민주당 세계한인민주회의(재외동포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개최

- 의장 및 공동수석부의장 포함 원내 13명, 원외 21명 등 총 34명 진용 갖춰 -
- 심상만 세계한인회총연합회 명예회장, 세계한인민주회의 부의장단 합류 -

더불어민주당 세계한인민주회의 의장(이재명 대표)는 3월10일(월) 오전 국회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공동수석부의장 및 원내·원외부의장단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자리에선 지난해 9월20일 공동수석부의장으로 임명된 이재강·이기현 의원이 같은 해 10월7일 임명된 원내부의장 10명과 올해 2월28일 임명된 원외부의장 21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세계한인민주회의는 전 세계 한인의 정치 참여 확대와 민주당과 해외 동포 사회 간의 연결 강화를 위해 2010년 설립된 민주당 당헌상 기구다.

이번에 임명된 원내부의장은 ▲박희승 ▲이광희 ▲허성무 ▲문대림 ▲문금주 ▲권향엽 ▲김현정 ▲김성희 ▲박민규 ▲김용만 의원 등 10명이다.

원외부의장으로는 국내 및 해외 주요국에서 활동 중인 21명의 인사가 임명됐다.

특히 재외동포 사회에서 오랫동안 활동해 온 심상만 세계한인회총연합회(세한총연) 초대 회장이 원외부의장으로 임명된 점이 주목된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720만 재외동포 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하고, 세계한인민주회의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심상만 부의장은 “세한총연 초대회장일 때 재외동포의 실질적 참정권 보장을 위해 우편투표 도입을 위해 노력했는데, 거의 99.9%까지 됐다 싶었는데 안 됐다”라며 “동포들

이 투표권을 가져야만 정치권에서 신경을 쓴다. 세계한인민주회의 부의장으로서 우편투표 도입을 위해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이재강 공동수석부의장은 “현재 해외에 약 240만 명의 유권자가 있다”라며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중요한 역할을 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기현 공동수석부의장은 “재외동포들의 권리 신장을 위해 원내·원외부의장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며 “각자 맡은 바 책임을 다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기여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임명장 수여식 이후, 해외에서 참석한 원외부의장들은 이재명 대표와 기념촬영을 진행하며, 더불어민주당과 재외동포 사회 간의 연대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2010년 설립 이후, 세계한인민주회의는 해외 거주 동포들의 정치적 권익을 신장하고, 재외 유권자들의 민주당 지지를 확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이번 임명장 수여식을 계기로 더불어민주당은 재외동포 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다가올 정치적 변화 속에서 재외국민의 목소리를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2025년 3월 10일

더불어민주당 세계한인민주회의(재외동포위원회)

[첨부1] 더불어민주당 세계한인민주회의(재외동포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이재명 대표와 심상만 세계한인민주회의 부의장



▲더불어민주당 세계한인민주회의 부의장단